

2013. August **8**

날씨 에세이

날씨와 범죄

열린마당

유기고양이 쉼터 이야기 슈퍼컴퓨터 파수꾼, 기상청의 심장을 지켜라!

포커스

'정부3.0 기상정보'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해운대를 덮친 해무 쓰나미



「2012 기상사진전」 입선 최주호님 작품

해운대 바닷가에서 생긴 거대한 해무가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해무는 바다 위에 끼는 안개를 말하는데, 공기와 해수면의 기온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여름에는 바닷가의 차가운 공기와 대기 중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생기며, 겨울에는 바닷가의 따뜻한 공기와 대기 중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 생성된다.

해무가 잦아지면 기관지계 질환과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도로교통과 해상을 이용한 인적 · 물적 자원 이동에 막대한 불편을 끼칠 수도 있다.

기상청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개 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ma.go.kr)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ugust 8







Contents

KMA Special Issue

풍경이 있는 날씨촌 울릉도 여름축제 $]\cdot 02$ 날씨 에세이 '비'를 기다리는 축구팬 $\cdot 04$ 날씨와 범죄 $\cdot 06$

KMA About

열린마당 35시간의 뜨거운 질주 '280랠리' · 故 이동일 센터장님, 당신을 기억합니다 \cdot 의령으로 떠나는 텐베이비즈 가족여행, $3GO! \cdot 12$ 제6차 한 \cdot 중 태풍워크숍에 가다 \cdot 유기고양이 쉼터 이야기 \cdot

슈퍼컴퓨터 파수꾼, 기상청의 심장을 지켜라 $! \cdot 18$ 포커스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cdot 20$

'정부3.0 기상정보'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cdot 22

고품질 예보 콘텐츠 개발 \cdot 24

2030 **솔로탈출** 그녀의 화려한 반격! · 26

кма Норе

공익광고 층간소음 · 28

날씨만화 해수욕장 날씨 서비스 $\cdot 29$

포토뉴스 · 30

퀴즈 · 32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or.kr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2013년 8월호(통권 386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6 팩스 (02)836-5472 E-mail kimhy80@korea,kr 발행일자 2013년 8월 10일 편집기획 대변인실 발행처 기상청 발행인 이일수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편집장** 나득균 **편집** 대변인실 디자인/인쇄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31)906-7735

골라즐기는재미 2014여름축제!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꼭 가고 싶은 섬이 바로 울릉도가 아닐까싶다. 한반도 동쪽 바다를 외로이 지키는 섬 울릉도는 오각형 형태의 화산섬으로 동서길이 10km, 남북길이 9.5km, 해안선길이는 64.43km에 이른다. 평지가 거의 없고 해안은 대부분 절벽으로 이루 어져 있어, 바다에서 갑자기 삐쭉 솟은 듯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곳곳에 기암절벽이 다양한 모습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예부터 도둑, 공해, 뱀이 없고 물, 미인, 돌, 바람, 향나무가 많아서 흔히들 울릉도를 '3無5多의 섬'이라고도 부른다.



전신영 / 울릉도기상대

울릉도는 어디에서건 탁 트인 동해바다와 하늘, 그리고 진한 바다 내음을 물씬 느낄 수 있다. 또한 가는 곳마다 펼쳐지는 신비로운 형상의 기암괴석, 다양하고 신기한 동·식물들과 순수한 자연 원시림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이다. 이런 비경 외에도 먹을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은데, 울릉도 최대 특산물인 오징어와 봄이면 돋아나는 갖가지 산나물, 그리고 섬더덕, 약소, 호박엿, 바다낚시, 스킨스쿠버, 트레킹 등 모두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이런 다양한 즐거움을 한층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에는 축제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 특히 여름이면 청록 빛 바다, 맑은 공기, 또 청정해변을 내세워 많은 축제가 열린다. 먼저 울릉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징어를 먼저 떠올리는데, 울릉도 오징어는 살이 두꺼워 씹는 맛이 좋고, 씹을수록 고소한 단맛이 우러난다. 그 비결은 역시 청정의 바다라고 할 수 있다.

울릉도 오징어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 전통문화를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개최된 '오징어축제'는 2001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8월에 열린다. 주 무대는 울릉 8경 중에 '저동어화'로 유명한 저동항이다. '저동어화'란 말 그대로 밤에 저동앞바다에 출어한 수많은 오징어잡이배의 반짝이는 환한 불빛을 말한다. 울릉도 여행자라면 빼놓지 않고 봐야할 경치 중 하나이다.

또한 저동항 뿐 아니라 울릉도 일대에서도 각종 행사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첫날 풍어기원 제례를 시작으로 2박 3일간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진다. 주요프로그램으로는 오징어 조업 체험 승선, 난타공연, 서예퍼포먼스, 몽돌 쌓기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오징어 맨손잡기가 큰 인기다. 오징어를 직접 잡는체험은 물론, 잡은 오징어를 현장에서 회로도 먹을 수있다. 더욱이 오징어 맨손잡기에 참여하지 못해도 오징어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바로 오징어요리 시식회인데, 울릉도 주민이 만든 다채로운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이외에도 오징어 끼우기, 오징어 배따기, 오징어 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울릉도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지난 6월에는 '울릉도컵 벵에돔 전국 바다낚시대회' 가 열렸다. 2001년부터 울릉도 지역의 풍부한 바다낚시 여건과 자원을 전국에 알리고자 매년 6월말과 7월 초 사이에 개최되고 있다. 이 대회는 전국의 벵에돔







- ① 오징어 맨손잡기 ② 오징어 끼우기 대회
- ③ 오징어 요리 경연대회



바다낚시대회 중 최고상금이 걸려 있는데, 저동항 촛대바위와 울릉도 갯바위 일대에서 펼쳐진다. 지역선 발과 예선전 등을 거쳐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약 100여명의 낚시인들이 참가하여 우열을 가리는 시간을 가졌다. 비록 입상하지 못해도, 울릉도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짜릿한 손맛도 느낄 수 있기때문에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울릉도의 여름축제는 바로 '해변 가요제'다. 1998년부터 시작돼 울릉도 문화축제 중에 서도 가장 오래된 노래자랑 행사다. 아마추어 노래자랑 예선을 거쳐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장기자랑, 그리고 연예인 초청 공연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육지처럼 크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동네축제 같은 편안하고 정겨운 맛이 있어 좋다.

또한 여러 행사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불꽃놀이'다. 밤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불꽃놀이는 그 야말로 환상 그 자체다. 울릉도 밤하늘에 펼쳐진 불빛 하나하나가 한 폭의 그림 같이 아름답게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이다.

울릉도에는 이러한 여름축제 외에도 산악스키페스티 벌, 요트경기대회, 산나물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수 시로 열리고 있으니, 이번 휴가엔 '신비의 섬' 울릉도 의 축제 현장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다양하고 재 밌는 이벤트에도 꼭 참가해보길 바란다.

'비'를 기다리는



이광용 / KBS 아나운서



지난 6월 18일, 한국 축구대표팀이 8회 연속으 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이 성과는 아 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대단한 것이 지만, 최종 예선 마무리 과정에서 대표팀이 보여 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 의미가 많이 퇴색 되고 말았다.

최소한 무승부라도 해서 '불쾌한 팀' 이란을 떨어 뜨려 우즈베키스탄과 동반 진출을 이뤘더라면, 지 금과 같은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 만 최강희 감독이 이끈 대표팀은 축구팬들을 실망 시킨 결과와, 그보다 더 한심했던 경기 내용으로 인해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 황에 놓이고 말았다.

"결과가 괜찮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게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이란 전을 앞두고 대표팀과 축구팬들은 수중전을 예 상했는데, 경기 직전 비가 그치면서 선수들은 물론 관중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경기를 응원 할 수 있었다. 또한, 저녁 무렵까지 꽤 많은 비 가 내리면서 프로야구 4경기가 모두 취소되는 바람에, 월드컵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는 스포츠 팬들의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이란을 제압하고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 란 대업을 멋지게 완성했다면, '축구' 자체에 대 한 관심과 기대, 특히 이번 대표팀의 주축 선수 들이 뛰고 있는 무대인 대한민국 프로축구 'K리 그'에 대한 관심도 조금은 높아질 수 있지 않았 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K리그가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았다는 사실을 아는가? 지난 5월 8일이 이 땅에서 프로축구가 시작된 지정확히 30년 되는 날이었다. 1983년 5개 팀이 참여하며 '슈퍼리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프로축구는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변신과 발전을 거듭한 끝에 14팀이 참여하는 1부 리그 'K리그 클래식'과 8팀으로 이뤄진 2부 리그 'K리그 챌린지'로 나뉘어 한 시즌을 치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외형적으로는 팀 수도 많이 늘었고 올해부터는 1부와 2부 체제가 갖춰진데다 승강제까지 본격 실시되는 등 유럽의 축구리그 못지않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다. 문제점을 꼽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는 K리그의 가장 큰과제는 '노출의 확대'이다. 명색이 야구와 함께 국내 스포츠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국민 스포츠임에도 축구팬들 입장에서는 중계방송이나 언론노출에 대한 불만을가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경기장 밖에서 경기를 제대로 만나보기가 쉽지 않다. 지상파는 물론이고 스포츠전문 케이블 채널에서도 프로축구 경기를 생중계하는 일은 흔치 않다. 그나마 올해는 지역 방송사나 신생 스포츠 채널 등에서 꾸준히 경기 중계방송을 하고, 포털사이트가 그것을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늘고 있지만 팬들은 아직 배가 고프다.



현재 'K리그 클래식 2013' 경기들이 저녁마다 팬들을 찾아가고 있다. 그나마 봄에는 킥오프 시간을 이른 오후로 잡아 메이저 스포츠 케이블 채널이나 지상파의 노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가 적당히 내려 야구는 하루 쉬고축구 경기를 TV로 볼 수 있게 되는, 월드컵 최종예선이었던 이란전과 같은 상황이 종종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생각 말이다. 한 번이라도 더 봐야 정도 들고 흥미도 생기는 법이기에, 그렇게라도 노출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축구팬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러 시행착오 속에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대한 민국 프로축구는 얼마 전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K 리그 30주년 기념행사에서 공개된 'BEYOND11'이 바로 그것이다. 이 비전의 내용을 살짝 들여다보면, 프로축구연맹은 승강제를 확실히 정착시키고 가장 큰 시장이 서울에 프로팀을 확대하며, 지금은 만 명 선에 그치고 있는 경기당 평균 관중을 1부 리그를 기준으로 2만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 등이다. 또, 현재 60억원 대인 중계권료를 4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각팀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밖에도 적극적인 유소년 정책과 사회 공헌 활동, 그리고 신규 비즈니스 도입과 축구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야심찬 계획들도 포함시켰다. 프로축구연맹이 앞장서 끌고, 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뒤에서 밀어준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내용들이다.

'BEYOND11' 비전의 목표점인 2022년, 비를 기다리는 축구팬의 서글픈 이야기는 분명 즐거운 추억담으로 회 자되리라 믿는다.

날씨와 범죄



송성준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현장분석팀장

"날씨와 범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노출이 많은 무더운 여름에 증가하고, 절도사건은 맑은 날보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 많이 발생한다. 직업이 남의 것을 훔치고 사는 사람들이라 천성이 게으른 절도범들은 비가 오면 개 점휴업(?) 상태지만, 오히려 이런 날을 범행 D-day 로 계획하는 전문적인 범인들도 있다. 빗소리로 인해 침입구 등을 망가뜨리는 마찰음을 숨길 수 있고. 빗 물로 인해 흔적이 잘 남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미 체 험했기 때문이다.

배우 송강호씨가 열연한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면. 범인은 항상 비오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을 상대 로 범죄를 저지른다. 대체 왜 범인은 비오는 날에만 범행을 저질렀을까? 음습한 날씨로 인해 기분이 우울 해졌을 수도 있고. 특정 날씨에만 범행을 하는 습관 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도 무엇보다 비와 함께 치 는 천둥 번개소리가 있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반 항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 아니었을 까? 주인공 형사들도 일기예보를 듣고 그 날 반드시 범행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했으니, 날씨는 범인 들에게나 경찰들에게나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다.



여름철 범죄

덥다고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어 두고 자는 집도 여름 철 절도범들의 먹잇감이 된다. 주로 마당이 있는 주 택에 들어가, 몰래 옷가지 등에 들어 있는 지갑이나 가방을 들고 나와서 목적을 취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직접 들어가지 않고, 긴 작대기에 갈고리를 달 아 옷걸이 등에 걸어둔 바지를 집어내는 수법도 성행 하고 있다. 사람들이 날씨 탓에 잠을 자지 못하고 뒤 척이다 겨우 잠든 새벽 3~5시 사이가 이들이 활약하 는 주요 시간대이며, 문을 손괴하거나 파손 없이 들 어가서 목표한 목적물만 들고 나오기 때문에 수사단 서가 잘 남지 않는 범죄이다. 그래도 꼬리가 길면 잡 힌다고. 연관된 범죄의 동선과 발생 시간대를 분석한 후 잠복이라는 기나긴 사투를 벌이다 보면, 범인은 언 젠가 꼭 잡히게 마련이다.

여름 이맘때면 동네상점마다 친절하게 휴가날짜를 명시한 안내문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가게 안에 아 무도 없다는 것을 범인들에게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 고 있는 것이다. 일부러 찾아준 손님들의 헛걸음을 헤아린 배려겠지만, 범죄예방 측면에서는 바람직하 지 않다. 그보다 평소 찾는 단골손님들에게 미리 안 내를 해서, 출입문 등에 빈 점포라는 사실을 티내지 않는 것이 절도를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장마철 사건

비만 오면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일선 경찰 서 과학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이다. 비가 오는 날. 경찰서에 동네시민들이 견학을 왔다. 안내를 해 주면서 집에 패물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물었더니. 열 이면 열 모두 안방 서랍장에 둔다는 것이었다. 그래 서 집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패물은 비닐봉지에 넣어 가족들만이 아는 장소에 꼭 숨겨두라고 알려주었다.

두세 달 후, 그날도 비가 무척 내린 날로 기억된다. 절도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 감식을 나갔더니, 어디서 본 듯한 아주머니 한 분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셨다. 바로 그날 경찰서를 방문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

66 아이고! 그 때 경찰관 아저씨 말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패물을 다른 곳에 숨겨뒀는데, 도 둑놈이 안방 옷장만 엉망으로 뒤져놓곤 패물 은 못 찾고 갔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비가 오던 날. 빌라에서 사람이 추락하여 응급실로 옮겨진 사건이 있었다. 수사를 하 다 보니, 다친 사람의 소지품에서 드라이브와 장갑 등 의 절취 연장이 나왔다. 그리고 여죄 수사 결과, 그가 바로 위에 언급된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졌다. 범인이 빌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추락한 것이었다. 비오는 날 경찰서를 방문하고, 비오는 날 범행을 당 하고, 또 비오는 날 범인이 검거됐으니 날씨의 우연 이라기엔 연관성이 무척이나 크지 않은가!

이렇게 날씨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고, 날씨로 인해 범 죄가 예방되기도 하지만, 범죄와 사건은 날씨와 상관 없이 늘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다. 운전 중 무심 코 내뱉은 한마디가 서로 시비가 되어 폭력사건에 휘 말리기도 하고,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에 살인이 일어 나기까지 하는 세상이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와 습한 기운으로 불 쾌해지기 쉬운 여름이다. 이런 때일수록 한 뼘 양보 하고 한 걸음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 사고 없는 안전 한 휴가를 보내시길 기원한다.



권혁준 / 강원청 예보과



산악 280km를 36시간 안에 들어와야 하는 산악자 전거계의 철인경기인 '청양랠리'에 출전하기 위해, 4월 초부터 등산과 라이딩 훈련에 돌입했다. 그 결과, 76kg이었던 몸무게가 대회 즈음엔 71kg까지 줄었다. 하지만 참가부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선기 전과장님께서 아내의 참가 동의서를 갖고 오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신 거였다. 위험에 빠지거나 불상사가생길수도 있으니, 집사람의 허락이라도 받고 가라는 큰 형님 같은 염려였다. 결국, 아내의 허락이 담긴 모바일 메신저 대화창을 보여드리고서야 조심히 잘 다녀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6월 28일 금요일. 퇴근 후 바로 짐을 챙겨 청양으로 향했다. 청양공설운동장에 도착하니 새벽 1시 30분이었다. 주변은 텐트에서 자는 사람,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거나 라면을 끓여먹는 사람들로 붐볐다.

배번을 받아 자전거에 붙인 후, 자동차 의자를 길게 펴고 1시간이라도 잠을 청하려 했는데 잠이 오질 않았다. 새벽 3시엔 선수들이 운동장에 하나둘씩 모여들고, 배번 뽑기로 기념품도 하나둘씩 나눠주는데 난하나도 맞질 않아 아쉬웠다. 하긴 700여 명이나 참가했는데. 맞을 리가 있나!

'280랰리'

이렇게 1시간여 동안 출발행사를 한 후, 새벽 4시 정 각이 되자마자 일제히 열을 지어 출발지를 빠져나가 기 시작했다. 초반부터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는 가파른 산길이 나타났지만, 산등성까지 길게 늘어진 수백여 개의 자전거 라이트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하지만 곧 해가 뜨고 32도를 넘는 땡볕 더위가 찾아왔다. 천안, 공주 등 일부지역은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표됐는데, 참가선수들 모두 혈떡거리는 숨을 참아가며 산을 오르고 있었다. 게다가 날카로운 파쇄석이 많아 펑크를 때우는 라이더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訓나

그러나 내게는 다른 이보다 더 힘든 어려움이 있었으 니, 바로 배낭의 무게였다. 거의 대부분이 지원조가 따 라다니며 중간 중간 먹을 것을 보급해주고 자전거 정 비까지 해주는데, 나는 혼자라 10kg가 넘는 짐을 등에 짊어지고 가야 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아침부터 복통과 설사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화장실을 5번이 나 드나들었는데, 그때마다 바람 빠진 풍선마냥 기운 이 쪽쪽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런 걸로 포 기할 거였다면 참가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산 하나를 내려오자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초입에 들어서자, '빨래판'이라 불리는 가로줄이 쭉쭉 그어진 콘크리트길이 자주 나타나 참가자 모두 를 질리게 만들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수박냉채 한 그릇을 먹고 가라는 것이 아닌가! 어찌나 시원했던지 지금은 이 수박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로 바뀌었다. 아 무튼 내 꼴이 불쌍해보였는지 이 분은 코스를 지날 때 마다 자신이 이끄는 참가선수에게 줄 음식들을 나눠 줬고, 무거운 짐까지 옮겨주는 등 더할 나위없는 도 움을 베풀었다. 지원조의 유무에 따라 그 힘겨움의 차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 이후 가벼워 진 배낭과 두둑해진 뱃심으로 나의 자전거는 산을 날 아가는 듯했다. 게다가 해가 지면서 다음날 아침까지 시원한 라이딩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정말 길도 없는 산으로 자전거를 메고 한참 을 올라야하는 코스도 나타났다. 이렇게 자전거를 메 고 끌고 올라가는 싱글코스가 이번 대회에서는 네 번 있었다. 아침이 되자 졸음이 어찌나 쏟아지는지..... 졸음 라이딩이 시작된 너무도 괴로운 시간의 연속이 었다. 땡볕인데도 이렇게 졸릴 수 있다는 것이 나 자 신조차도 믿기 어려웠다. 뜨거운 햇볕 때문인지 정오





쯤 되자, 옆에 있던 선수는 그만 반 실신상태로 쓰러질 뻔도 했다. 그러나 같이 온 동료들이 다리를 주물러주 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모습이 감동을 전해줬다. 아. 이런 것이 진정한 동료애가 아닐까? 자 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기쁨과 함께 뜨거운 동료애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매력 때문에 모두가 이런 고생을 자처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오후 3시를 조금 넘겨서 야 드디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35시간 13분의 라이딩! 엄청 기쁠 것 같았던 기대와는 달리 이상하게 도 무덤덤했다. 그러다 코팅까지 된 완주증을 받고나 서야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감이 물씬 밀려왔다!

랠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야말로 '졸음 과의 전쟁'이었다. 고속도로에서 창문을 열고 큰 소 리를 꽥꽥 지르는 등 4시간의 사투까지 더해서야 무 사히 집으로 도착할 수 있었다. 사실 이때가 이번 대 회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내게 '280랠리'는 대회를 준비하면서부터 마칠 때까 지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지원 조가 없는 완주란 정말 힘든 것임을 새삼 깨닫게 해 준 시간이었다. 아마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서로 도와가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함 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2010년 2월 초. 세계기상기구 정보시스템(WIS, WMO Information System) 업무와 몇 주 후 시작될 조 정그룹회의(ICG-WIS, Inter-coordination Group on the WIS) 준비를 시작한지 1주일 정도 되던 일요일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전화벨이 울렸다.



허성회 / 정보통신기술과

"01/4/1PL?"

"いけた かけえした? ましい はしてまして いましてきりょう"

잠결에 받은 전화가 그와 나의 인연의 시작이었다.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기상청의 WIS 역사와 회의 활용방법' 등 문서에도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내게 故 이동일 기후변화감시센터장님은 스승과도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사실 그 당시, 센터장님은 교육연수(세종연구소)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특정업무를 신경 써줄 이유가 없었다. 조정그룹회의 개최 전날, 새벽부터 외국에서 오는 주요 인물들을 맞이하고, 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식사대접을 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정보화 분야의 국제적인 입지가 부족했던 한국기상청으로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특히 세계기상정보센터(GISC 서울) 유치에 대한 주변국의 저항을 극복하고 관련 인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대관계 형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리하였던 것이었다

이런 일화가 보여주듯이, 故 이동일 센터장님은 일에 대한 열정이 그야말로 대단했다. 국제, 정보화, 슈퍼컴 업무 등 기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그의 관심사항이었다. 특히 기상청의 정보화 분야 국제 업무 발전에 대한 노력이 엄청났다. 세계기상정보센터 유치는 그 노력에 따른 결실인 것이다. 세계기상기구의 WIS 개발 초기만 하더라도 기상청은 자료수집생산센터(DCPC)를 신청했다. 하지만 기상청의 정보통신 인프라 및 정보화 역량을 제대로 평가한 그는 세계기상정보센터로 목표를 상향시켰다. 또한 곧바로 세계기상기구와 기본체계위원회(CBS, Commission for Basic System)의 정책결정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기상 분야에 모든 열정을 쏟았던 그가 갑작스레 우리의 곁은 떠나고 말았다. 그의 부고가 해외 WIS 커뮤니티에도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분들로부터 진심어린 애도의 뜻을 전달 받게 되었다. 특히, CBS 의장(Mr. Fred Branski)과 WMO 사무국 정보화관측국장(Mr. Peiliang Shi), NCAR 부소장(Mr. Al Kelly), 중국기상청 정보통신과장(Ms. Xiang LI)은 그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또한 그의 절친 중 한 분이었던 일본 나리타 항공청 장(Mr. Hiroyuki Ichijo, 전 일본기상청 정보통신과 장)은 그를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故 이동일 센터장님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에게 훌륭한 동료이자 좋은 친구였다. 기상업무에서 우리는 큰 별을 하나 잃은 것이다. "나주 술등 소심하나다. 우리는 훌륭한 친구이지 종료를 합자습니다. 이동일 센터지는 주변을 즐겁게 만들었으 때, 우리는 그가 보어주었던 추진적과 유머가는, 그리고 열점을 있지 못할 겁니다. 세계기사 통신체계와 국제 자료교환이무에 있어서 그는 나주 훌륭한 협적을 이끌어 봤습니다. 세계기사가 지원토신체계(WIS/GTS) 커뮤니다는 그를 배우 그리워할 것이나다."

"그는 마수 훌륭한 동료이지 저의 가지 있는 친구 중의한 명이 있습니다. 수리는 서울-동생간 국제통신에 개선을 돌았는데데에기사가구 활동을 통해, 1999년부터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의 경소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울픈 소식에 마수 불값으며 그가 제속 생각한 것이나다."



"힘들지? 주위에서 아무도 한도와 주는 것 같지? 그런데 알고 보던 주 위의 모든 사람들은 다 너를 도와 줄 사람들이 하는 네가 작금만 생겨울 내꾸던 그 사람들은 흙함 젊, 작력자가 될수 있어!"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기 전, 차분하지만 힘 있는 어투로 격려해주셨던 그 말씀이 자꾸만 생각난다.

"선배성 그 열정 이어분이서, 이곳에서 묏내 이루신 꿈, 저희 흑배들이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복다 같은 곳으로 가서서 됐히 쉬십시오."



의령으로 떠나는 커닝으노 떠나는 **3GO!** 텐베이비즈 가족여행,



문보영 / 부산청 예보과

대학 때부터 함께 해온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선배·동기 모임 '텐베이비즈(10babies)' 밀레니엄을 맞이한 2000년의 역사적인 어느 날, 학교 앞 나이트클럽에 10명의 친구들이 모 였고, 그들이 최초의 텐베이비즈 정회원이 되었다. 지난 세월, 사랑의 아픔을 겪었던 청춘 을 지나면서 멤버의 변동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모두가 가정을 꾸린 다섯 가정이 완성됐다.





모처럼 모두의 일정을 어렵게 맞춰 여행을 떠나기로 한 지난 7월, 의령으로 귀농하신 선배네 어른들께서 기 꺼이 집을 비워주시겠다는 말씀에 장소를 그곳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상청 직원의 빽(?)으로도 어쩔 수 없 이 일기예보는 비, 비, 비, 어쩌겠는가,'텐베이비즈'예보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까짓 무조건 출발이 다! 부산에서 한 시간 반 남짓 달려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자, 빨간 기와를 얹어 야무지게 지어진 집이 우리 를 맞이했다. 마침 집을 나서려고 채비를 하시던 선배네 어른들께서도 우릴 반갑게 맞아주셨다.

"떤 길 오느라 과병했지? 우리는 이제 막 나가는 길이다. 던라게 돌다 가고네이."

"저희가 괜히 떼 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떼는 무슨! 바람에 깨나한 나는 사람들 있고, 고추당 오이도 있는데까 다~ 따 무그라! 떠는던 또 나는데, 우리 내외 목이었다는 택도 때다."

가마솥에 구수한 시래기국까지 한 솥 끓여놓으셨다는 말씀에 죄송하면서도. 고프지 않던 배에 허기가 느껴지 는 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인가 보다. 오후가 되어서야 모든 가족들이 모였는데, 자꾸만 흐려지는 날씨가 조금씩 불길하게 만들었다.

ed GO

물놀이를 위해 근처에 있는 유곡천(柳谷川)으로 향했다. 물이 맑기로 유명한 곳인데 멀리보이는 물빛깔이 흙색이다. 계속된 장맛비에 유량은 많 아졌지만,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로 인해 강물이 탁해져버린 모양이다. 물 건너간 물놀이에 아쉬 운 마음을 달래려 발을 담가보는데, 발을 딛는 강 돌 틈바구니마다 다슬기가 다닥다닥 붙어있다.

"아름아, 때기 봐! 이게 다들기라고 하는 게야." "입다 나도 얼래!" "나도, 나도, ない岩래!"





수경을 수면 위에 올려놓자, 시야가 맑아지면서 강돌마다 붙어있는 제법 굵은 다슬기들이 선명하 게 보인다. 잠깐 사이 대여섯 살 아이들의 손으 로 잡은 양이 한 양푼 가득이다. 낚시를 나간 선 배와 족대를 짊어지고 나간 친구들도 손가락 두 어마디 만한 피라미 몇 마리를 낚아 아이들 앞에 체면치레를 한다.



'이게 되라고고 이건 메기라고 하는 710 F"

"otilit olm off monit?" "자은 친구들이 Wart 'otica~'강나고 얼 H字和?"

"oti=1~ 75 7+!"

풍성하 (G()

물고기들과 작별인사를 마친 아이들과 함께 시골집 뒤편 텃밭으로 향했다. 옥수수, 감자, 고추, 깻잎, 상추... 지천에 건강한 먹거리 들이 넘쳐난다. 뿌리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감자를 보는 건 나도 처 음이다. 텃밭을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신선한 저녁 찬거리가 소쿠 리 가득 쌓였다. 통영이 고향인 친구가 공수해온 전복이랑 키조개, 청도만큼 소가 유명한 의령에서 직접 구입한 야들야들한 소고기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꼬치구이, 또 금방 밭에서 딴 야채까지 차려놓으니 정말이지 상다리가 부러질 듯하다. 좋은 음식과 더해 진 술 한 잔에 행복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해서 더 행복하고, 평 생을 곱씹어도 웃음 나는 추억이 있어서 '더더더' 행복한 밤이다.





행복하 (급()

오후 내내 흐렸던 하늘이지만, 다행스럽게도 비를 쏟진 않 았다. 하늘이 큰 맘 먹고 한 발 양보했는지, 그날 밤의 기분 좋은 흥이 가시기 전까지 하늘은 반짝반짝했다. 물론, 다음 날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예보가 딱 들어맞게 비가 쏟아 졌다. 그래서 의령에서 유명한 '의령소바'를 먹고 이동하는 길에, 우리는 온가족이 비를 피하기 위해 돗자리를 펴고 걸 어가야 하는 장관을 연출해야만 했다.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이야 어떤가. 훗날 나눌 수 있는 또 하나의 추억을 만 들지 않았는가!

결국. 예보를 이기지는 못했지만 쏟아지는 비도 우리의 신 나는 여행을 꺾지는 못했다. 가족들과 함께한 농촌체험에 즐거웠고. 맛있는 건강한 먹거리가 풍성했고. '우리'라는 이 름으로 함께할 수 있음에 행복했던 의령 가족여행. 정말 텐 베이비즈라서 행복한 날이었다.



제6차

한·중 태풍워크숍에 가다

국가태풍센터와 중국 상하이 태풍연구센터는 매년 기술교류를 위해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6번째인 한·중 워크숍(5.26~6.1)은 중국 상해에서 열렸으며, 기상청 8명과 학계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태풍 예보, 분석, 관측 분야의 활발한 기술교류가이루어졌고 핫라인 개설 등 협력체계가 강화되었다.



출국 수속을 하고 비행기에 탑승하기까지 설렘과 긴장 감이 교차하였다. 연구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부담과 중 국 방문에 대한 기대가 함께 있었다. 상해 홍차우 공항 에 도착하니 낯선 이국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상 해의 날씨는 습하고 더웠다. 낯선 공기와 낯선 사람들 이 우리나라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지만, 먼저 마음을 열면 그들도 환한 얼굴로 다가오리라 생각했다.

다음날, 우리는 상해태풍연구소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한·중 양국 간에 태풍 계절예측, 사례분석, 수치모델, 위성분석 등 약 30편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또한, 양국의 태풍 전문가와 교수들과의 토론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어 상해태풍연구소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도착한 상해기상국 신청사는 SF영화에서 본 듯한 광경으로 나 를 압도하였다. 중국은 기상업무의 중요성에 걸맞게 아 낌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을 확충했음을 볼 수 있었 다. 상해기상국의 날씨예보체계와 태풍연구소의 6개과 (태풍이론/예측기술개발과, 수치모델개발과, 해양기상과, 태풍기후연구과, 태풍관측정보과, 현업적용과)의 업무가 소개되고, 현재 산출하고 있는 태풍 베스트트랙 관련 홈페이지의 소개를 받았다. 그리고 베스트트랙 구축을 위한 기술협력과 양국 간의 태풍전문가 교환 근무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상해 태풍연구소 업무협의

쯔가웨이 기상관측소 앞

상해태풍연구소 근처의 쯔가웨이(Zikawei) 기상관측소는 1872년부터 관측을 시작하여 약 140년 동안의 오랜 관측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쯔가웨이 기상관측소는 1900년대 초에는 통신시설이 발달하지 않아 기상정보를 인편으로 전달했고, 그곳을 지나는 선박에게도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에는 상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각국의 언어로 기상정보를 전달했다고도 한다.

그날 밤, 중국인 안내원이 상해야경에 대해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저녁 8시부터 10시 반까지 야경을 볼 수 있는데, 기온이 36℃ 이상이면 전력사정으로 취소된다고 한다. 이곳 사람들은 기온이 40℃가 되면 모든 업무를 정지하고 휴무 상태가 된다고 했다.

중국기상청 관계자의 호의로 중국음식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우리는 술을 먹기 위해 요리를 먹는데, 현지사람들은 요리를 먹기 위해 술을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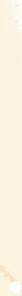
상해기상국 사무실 전경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많은 요리를 다 먹으며 음식을 즐긴다고 한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쇼핑할 기회가 있어 장신구 가게에 갔는데 진풍경이 펼쳐졌다. 저가품은 많이 깎지를 못하지만 고가품은 부르는 값의 1/5까지도 가격이 내려가서, 10만원이면 2만 원 정도에서 흥정이 되기도 했다.

상해에서 항저우로 이동해 저장성 기상청을 방문하고 저장성 기상과학 대학 및 낙뢰센터를 방문하였다. 그 뒤 항저우에서 베이징으로 이동하여 중국 태풍·해양 기상 예보센터를 방문했다. 중국기상청은 업무가 성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 협력 및 공동 연구는 중 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 성 자치정부와의 개별적인 협 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앙상블 등 다양한 태풍 예측진로 자료를 중 국 태풍예보에 사용하면서부터 태풍 진로예보 정확도가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태풍예측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 인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 자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지만 큰 혼란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예보의 중점 이 태풍진로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와 직결되는 예상 강우량과 풍속 등에 맞춰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 리나라도 이런 점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 각되었다. 태풍의 중심이 어디로 갔느냐 보다는, 그 영 향범위와 태풍으로 인한 강수량과 바람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업무상의 방문이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어 중국인의 삶을 깊이 있게 보고 느끼 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한·중 워크숍을 통하여 중국 기상청의 태풍업무를 이해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중국기상청 방문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유기고양이 쉼터 이야기





변가영 / 순천기상대



작년 말, 인터넷을 하다가 순천에서 고양이카페가 생긴다는 소식을 접했다. 고양이카페는 강아지들과 달리, 고양이들이 상대적으로 손님을 귀찮게 하지 않는 특성을 십분 활용해서 고양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 인사이동이 잦아 반려동물을 키우기 힘든 내겐 그야말로 희소식이었다. 휴일에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며 느긋하게 고양이를 볼 수 있다는 것! 내겐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다.

날을 잡아 간 카페에는 고양이들로 가득했다. 작은 카페에 스무 마리가 넘는 고양이들이 부대끼며 손님을 맞이하는데, 그중엔 카페 주인이 기르는 강아지도 있었다. 고양이카페라고 하면 가장 먼저 아름다운 털을 가진 혈통 있는 고양이가 생각나지만, 이곳은 조금 달랐다. 20대 후반의 주인은 이곳이 '유기고양이 쉼터'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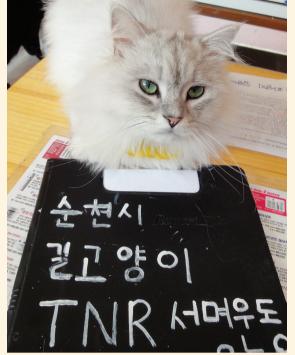
고양이카페와 함께 순천 유기묘 보호소도 운영하는 이 주인은 고양이를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었다. 다치거나 어미를 잃은 고양이들을 구조해 입양을 보내거나, 중성화를 통해 길고양이들의 개체 수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구조 활동 등을 말이다. 서울시 강동구, 천안시, 부산시 등 대도시에서는 점차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길에서 사는 동물들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한다.

시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순천 유기묘 보호소의 경우에는 시민, 방문객들의 후원과 보호소 운영자의 사비를 털어 운영되고 있었다. 구조비, 치료비, 사료비등은 기본이고, 구조하면서 고양이에게 물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본인의 강한 의지가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순천시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처리가 불가능 할 시 살처분'이라는 냉정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그 말을 하며 답답해하는 주인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간 곳이 바로, 카페에 있기에는 조금 아프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고양이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보호소였다.



하늘사랑_ 2013. 8. August





유기묘 보호소의 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다. 장마철이라 공기는 눅눅하고, 많은 수의 고양이들이 한 곳에 있어 배설물 냄새로 가득했다. 또한 구조된 새끼고양이들은 사람을 경계하고 있었다. 고양이 보호소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대부분이 청소와 고양이들의 밥을 챙겨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픈 고양이들이 격리되어 있는 철장도 청소하고, 나쁜 균이 퍼지지 않도록 소독하는 작업도 필수다. 태어날 때부터 화장실을 가리는 고양이들의 특성 덕분에 다행히 청소는 그리어렵지 않았다.

봉사자들은 이곳에서 고양이들이 좋은 가족들에게 입양되어 갈 때까지 병을 치료해주고,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는 일 모두를 한다. 고양이를 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양이를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고양이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고양이를 더욱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두세 명이 백여 마리의 고양이를 돌보고 나면 다섯 시간을 훌쩍 넘길 때도 많다. 그래도 한결 깨끗해져 뛰노는 고양이들을 보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훨씬 상쾌해진다.

고양이를 아끼는 한 사람이 시작한 구조 활동이 어느 새 작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근처 초등학교 아이들 은 더 이상 고양이가 지나가면 돌을 던지거나 쫓아내 지 않고, 조용히 소시지 하나를 놓아두고 간다. 바로 옆 고등학교 신문부에서는 동물을 대하는 법이나 보

호소의 현황에 대한 취재를 오기도 한다. 고양이는 요 물이라고만 생각했던 한 할머니는 가끔 쉼터에 들러 복작거리는 고양이들을 위해 간식을 사주고 가신다.

"고양이는 길에서도 잘 살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하던 이는 점점 고양이에 대해 알아가면서 그들이 길에서 떠도는 모습에 마음 아파했다. 한 학생은 자신이모은 용돈을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비용에 쓰라며 구조한 새끼고양이와 함께 주고 가기도 했다. 순천에고양이 보호소가 생긴 열 달 동안 사람들도, 고양이들도많이 변한 것이다.

사람들은 외로움과 귀여움에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온다. 그리고 아프다는 이유로, 털이 빠진다는 이유 로, 또는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 이 고양이를 길에다 버린다. 그럼 오갈 데 없어진 고 양이들은 동네를 뒤지며 음식쓰레기와 텃밭의 벌레 들을 잡아야한다. 결국 '도둑고양이'라는 호칭을 사 람에게 얻게 된다.

'길고양이'가 된 이들 중 많은 수는 사람을 경계하지만, 또 많은 고양이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머리를 비빈다. 이젠 우리가, 이 고양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건 어떨까? 이곳 순천 유기묘 보호소처럼 말이다.





슈퍼컴퓨터 파수꾼, 기상청의 심장을 지켜라!



전흥권(좌), 안영준(우) / 슈퍼컴퓨터운영과



진격의 김기자 : 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능인재 9급 견습직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등에서 학과 성적 상위 30% 이내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아 필기 ·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 후, 6개월간의 견습근무와 심사를 거쳐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에 두 명의 견습직원이 배정되어 근무를 한지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어떻게 해서 견습직원이 됐고, 또 앞으로의 포부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혈 견습직원 대표 전흥권:

안녕하세요. 작년은 제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갖게 해준 한 해였습니다. 대학을 휴학하고 군대에 가기 전,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모교 선생님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기능인재시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군대와 시험을 선택해야 하는 결정의 순간이었고, 내 미래를 좌우하기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비록 시행한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정보가 많이 없었지만,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상세히기능인재시험에 관한 매뉴얼을 올려놓은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3년 내내 전기실무과정을 배웠던 저는 서울산업대학교 전기과에 입학했지만, 어학과 교양과목에서 인문계를 나온 동기를 따라잡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또 토익 등스펙이 없어 취업도 걱정이었는데, 대학수업에서는 이론이 주를 이뤄 제가 가진 전기 실무 능력 또한 활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도피이자 전환점으로 군대를 택했다가, 다시 그 전환점이 기능인재로 바뀌게 되었죠.

제가 길러온 전기 실무능력만으로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음을 먹은 날부터 3달여 동안 국어, 국사를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맞춤법, 띄어쓰기등 기본적 소양을 익혀야 공문서 작성을 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서 나라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니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해 9월에 기능 인재시험을 치렀고, 드디어 합격자 명단에 '전·흥·권'이라는 이름 석 자를 당당히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합격 후 연수원 생활이 시작됐는데, 막고등학교를 졸업한 20세 안팎의 동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슈퍼컴퓨터센터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영준이를 만났습니다. 연수원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한 3주과정을 마친 후, 부처를 선택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은 몇몇의 대학교, 그리고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컴퓨터가 기상청에 있다는 사실을 신문으로 접해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었 습니다. 그래서 전기관련 업무의 발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기상청을 선택했습니다. 영준이 는 다른 부처는 눈에도 안 들어올 만큼, 오로지 기상청 슈퍼컴퓨터센터가 제일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여기를 선택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기상청 이란 글자에서 빛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견습 근무 부처 발령을 받고. 우리는 오창에 있는 슈퍼컴퓨 터센터에 첫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센터에 들어서니 눈앞에 '기상청의 심장'이라고 새겨져있는 커다란 표지 석이 있었는데, 보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 작했습니다. 이 두근거리는 심장처럼 슈퍼컴퓨터는 기 상청, 나아가 한국 전체의 심장이 되어 하루 종일 움직 이는 듯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듯이, 우리 나라 기상도 죽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만 같 았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심장' 이라 부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심장이 계속 뛸 수 있도록 저는 전기 기반 시설을, 영준이는 기계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직 둘 다 견습직원이라 서서히 업무를 배워나가는 과정이므로, 막중한 책임을 가진 업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직원이 되어 업무 분담을 받으면, 우리가 맡은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해 국민의 복지에 힘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또하나의 심장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예보관들이 슈퍼컴퓨터의 날씨자료를 분석하여 예보를 만들고, 그 정보를 얻은 국민들이 하루계획과 나아가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비록 슈퍼컴퓨터로 날씨를 화창하게 만들수는 없지만, 궂은 날이든 햇빛이 쨍쨍한 날이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예보로 국민들을 웃게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인재 시험을 통해 전문적인 능력을 살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 기상청에서 전문 영역인 전기 기반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점 또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운 좋게 시험에 관한 정보를 얻었듯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통해 기능인재 시험과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력량 검침(전기담당 전흥권)



터보냉동기 점검(기계담당 안영준)

국민이 체감하는 융합행정!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최근 수도권과 강원도에 내린 국지성 호우로 인해 '산사태와 도로 피해상황', '인명 피해와 이재민' 등 언론의 연이은 보도는 비의 위력을 실감케 하고 있다. 강수형태를 살펴보면, 1980년대 우리나라 여름철 평균강수량은 700mm를 밑돌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750mm 이상으로 증가 추세다.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강수의 발생빈도는 198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는 약 30% 정도 증가하여, 여름철 평균강수량 증가 추세보다 빠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자연재해 발생 중 수문기상 관련 재해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2010년 동안 홍수피해는 소하천에서 45%가 발생하였다(소방방재청, 재해연보). 그러므로 좁은 지역에 단시간에 많은 비를 내리는 국지성 호우에 대해 국가 차워의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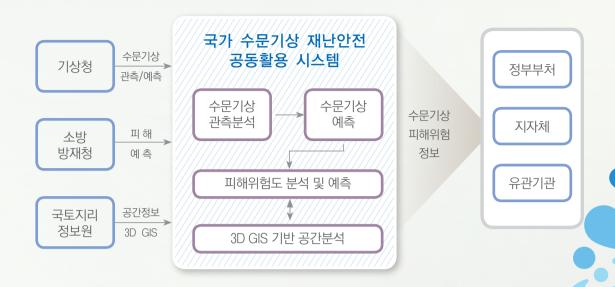
해양과 지표면에서 물이 증발되고, 증발된 수증기가 응결되어 비와 눈으로 지표면에 떨어진다. 떨어진 물은 하천수와 지하수로 이동하여 다시 바다에 이른다. 이러한 연속적인 과정을 '물 순환'이라 하며, 이를 다루는 학문을 '수문기상학(hydrometeorology)'이라고 한다. 그러나 물 순환은 하늘, 땅, 바다 모두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과정이지만 물을 우리가 사용하기까지, 그리고 물 관련 재해에 대한 대응 등 그 업무는 여러 기관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이 중 물이 증발, 응결되어 강수로 내리는 과정이 기상청 담당이다. 기상청은 관측 및예측을 기반으로, 재해 ·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홍수와 가뭄 등과 관련된 수문기상 정보를 국내 물 관리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기상청은 2000년 이후 수자원 관리 기관인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다. 최근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 환경 변화로 환경부, 지자체까지 협력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물 관리 유관기관들은 현재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행정구역별 정보가 아닌 유역별 '수문기상정보'를 필요로 한다.



권원태 / 기후과학국장





수문기상정보란 물이 특정 하천으로 흘러드는 범위인 유역(배수구역 또는 집수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로 강수량, 토양수분량, 증발산량 등이 있다. 따라서 기온, 강수량, 일사량 등의 기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수문기상 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술 개발 뿐 아니라, 물 관리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이 원하는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한 다각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융합행정의 일환으로 범정부적 재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홍수피해 우려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홍수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부처인 기상청, 소방방재청, 국토지리정보원(국토교통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각 부처의 고유 전문성에 따라 기상청은 수문기상 예측정보시스템을, 국토지리정보원은 3D지리정보(GIS) 분석시스템을, 소방방재청은 피해 위험도 예측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하여 신속한 재해대응을 위해최신 IT 기술을 접목하여 지자체, 물 관리 유관기관에 수문기상 재난안전 정보를 서비스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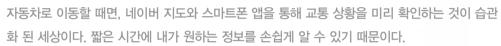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 활용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해 부처별 수문기상 관련 시스템 및 업무 체계 현황 등을 분석하여 대응체계 일원화를 위한 업무범위를 재정립하고, 시범지역을 선 정하여 시험시스템을 연내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별 6시간 강수량 예측정보가 하천 유역별로 1~3시간 강수량 예측정보로 개선되며, 1m 고해상도 지형정보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침수피해를 예측해 중·소하천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강수 변화에 따른 실시간 침수위험 예측지도를 제공한다. 향후 이 사업은 한강권, 낙동강권 등 우리나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점차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수문기상 재난안전을 위해 3개 부처가 협력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을 통해 서비스 되는 정보들의 신속·정확한 전달로 홍수에 대한 선제적 대응뿐 아니라, 홍수 발생 전·후의 재해예방과 재해복구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으로 홍수 조기경보 지원 등 범정부적 재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wild was a contract to the tenter of the contract to the contract to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행정관리담당관



개 방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온 서비스라 별 것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데이터 융합 서비스의 대표적 인 예가 아닌가 싶다. 이제는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융합 서비스를 하거나 개발 계획을 접하는 것 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최근 한 기상회사는 기상예측과 과거 발전실적을 기반으로 풍력이나 태양광발전소의 1~2일 뒤 발전량을 최대 오차율 17% 이내에서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기상정보와 과거 5년간의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활용해, 날씨와 질 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일별로 온도, 습도, 일조량, 황사 등 환경 요인에 따른 계절성 질 병들의 위험도를 파악해 '질병예측 알람서비스'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공정보를 활용한 융합정보 생산과 서비스, 이제는 국가 정책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정부3.0 비전 선포식'에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운영 방식을 공급자인 정부 중심에서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공공정보를 대폭 개방하여,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일자리도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정부3.0의 구체적인 발현은 투명한 정보, 유능한 정부, 그리고 서비스 정부의 구현에 있다. 투명한 정부는 수동적 정보공개에서 능동적 · 사전적 공개로 그 패러다임을 바꾸고, IT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협업 공간 등을 이용하여 정책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유능한 정부는 국민과 현장 중심, 과제와 협업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전환하여 현장기반문제 해결을 통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정부이다. 클라우드(PC, 휴대전화 등의 물리적인서버를 하나의 가상서버로 통합해서 활용하는 방식)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행정을 구현하며, 행정정보 공유와 시스템 연계 · 통합을 확대함으로써 소통과 협업을 지원하는 체제가 마련될 것이다.





기상청 정부3.0 워크숍

서비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수요자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부를 말한다. 일 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 서비스는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통합 제공하게 된다. 또한 취약 계층과 국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서비스 개발도 지속될 계획이다.

기상청은 기상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정부3.0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기상청은 정부부처 중 기상, 기후, 지진 등 많은 공공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처이다. 현재 자 체적으로 보유·운영 중인 29종의 DB 중 예보, 특보, 일기도, 위성, 레이터, 지상·해양·고 층 관측자료, 각종 기상지수, 황사 자료 등을 포함한 23종의 자료를 분류에 따라 전면 또는 부 분 개방하고 있다.

기상청은 정부3.0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자체 이행계획인 기상청 정부3.0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공공정보 제공의 중심을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전환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에 기반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약계층 맞춤형 민원 서비스' 등 파급효과가 크고 실현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구체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상정보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 관리 표준 양식을 개발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 할 수 있는 정보 공유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기상자료 열람 및 내려 받기 서비스. Open API(애플리케이션과 컴퓨터의 매개 역할을 하는 함수의 집합) 자료 제공 서비스, 한국 기상산업진흥원을 통한 기상정보 제공 서비스 등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기상기후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상과 의료 서비스를 융합한 'U–헬 스케어 서비스'. 기상과 에너지 분야를 융합한 '에너지 감축 스마트 웨더 서비스'의 시범 운영 도 준비하는 등 부가가치 높은 융합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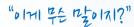
기상정보를 포함한 공공정보 개방 정책은 정부가 소유한 자산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을 관리자인 정부가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상청이 관리하 고 있는 정보를 민간과 정부기관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사람중심의 서비스 정부, 따뜻한 정부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국민이 행복한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김희아 / 예보기술분석과



'고품질 예보 콘텐츠 개발'이라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콘텐츠의 사전적 의미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이다. 그렇다면 기상청에서 새롭게 개발하는 고품질 예보 콘텐츠란 무엇인지, 이 글을 통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기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왜 일기도에 전선이나 기압능, 골, 제트기류를 분석하지 않지?" 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지난 3월부터 기상청 예보국은 예보업무 효율화를 통해 예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예보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자료는 예보분야만 하더라도 수만 가지에 이른다. 기상청은 자료의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과거와 달리, 수치예보의 발전 및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에 다양한 선진 예보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특화된 예보 콘텐츠의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전선 분석, 뇌우 포텐셜 분석, 해상일기도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각 콘텐츠는 위험기상의 발생요인이 되는 기상요소인 전선, 강풍, 뇌우 등을 일기도에 표현한 그래픽이미지 형태와 예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설명한 해설정보문 형태로 제공될 것이다. 각 콘텐츠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자.

"社社ot~ OTTI %U?"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일기예보! 그중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고기압, 저기압 그리고 전선이다. 그럼 전선은 무엇일까? 성질이 다른 거대한 공기덩어리가 만나면 섞이지 않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경계면을 형성하는데, 이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 전선면이 지표면, 즉 땅바닥과 만나는 선을 전선이라고 한다. 호우, 강풍 등 위험기상을 동반한 전선은 예보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활용된다.

1995년 미국에서는 기상학자를 대상으로 전선의 위치 분석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이때 참가자 대부분이 서로 다른 분석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그만큼 전선 분석은 분석자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전선 분석 콘텐츠**에서는 객관적인 전선 분석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상일기도를 생산하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24시간 예상일기도를 5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선의 종류, 위치, 강도 등 다양한 전선 분석과 강수 현상의 물리적 원인을 설명하는 상층 기압골 및 강풍대의 위치와 입·출구에 대한 정보를 일기도에 표현한다. 이를 통해예보설명 자료로 공유하고, 일기도 분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生学表なりとと!"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해 우박을 포함한 뇌우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의 원인이되어 피해 또한 심각해지는데, 아직까지 뇌우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이에 뇌우 포텐셜 분석 콘텐츠는 선진 뇌우분석기법을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고, 과거사례 분석을 통해 생산된 객관적 가이던스를 토대로 오늘과 내일의 뇌우 예상지역 및 시간, 발생 가능성, 위험기상(폭우, 뇌전, 우박, 돌풍 등) 가능성에 대한정보를 포함한 뇌우 포텐셜 예상도를 생산ㆍ제공한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기상 속보, 낙뢰 문자통보를 보완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뇌우도 탐지한다. 또한 동반되는 위험기상 및 피해에 관한 내용을 신속하게 피해지역에 알려주는 수도권 뇌우 실황 정보문을 8월 말부터시험 유영할 계획이다.

"卫星"是对明时是对加起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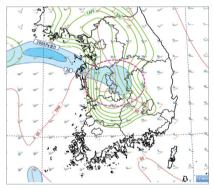
현재 기상청에서는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해상일기도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 수치모델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양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해상일기도 콘텐츠에서는 어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해양 기상요소 를 추출하고, 추출된 기상요소를 전문예보관이 직접 고 품질의 자료로 재가공하고자 한다. 또한, 해상에서 위험 기상으로 알려진 안개, 뇌우에 대한 정보도 추가할 것이 다. 더불어 가독성을 높여 원해 조업해역(러시아, 중국, 일본 EEZ 등)을 구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 각각의 콘텐츠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개발되어 콘텐츠 간의 자료 공유를 통해 신규 콘텐츠로의 재가공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험운영을 거쳐 2014년 초에 안정적으로 현업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의 예보 콘텐츠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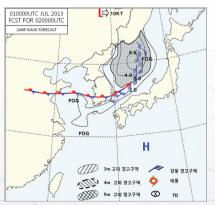
현재 개발 중인 예보 콘텐츠 일기도 예시



전선 분석 일기도



뇌우 포텐셜 예상도



해상일기도



연애 3년차. 권태기를 넘어 극도의 분노기를 맞이한 우린, 그날도 치열한 전투를 장렬히 치루고 말았다. 연애 초반, 그렇게 다정했던 남자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밴댕이소갈딱지로 다시 태어난 남자친구가 또 내 속을 박박 긁어놓은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연애 시기가 비슷한 친구 K. 이 친구도 요즘 남자친구와 티격태격하느라 속이 말이 아니라고 하니. 술이나 한잔하며 까맣게 탄 마음을 서로 위로해주기로 했다.

- 나 진짜, 초반엔 미리 집 앞으로 와서 데리고 가더니, 이젠 내가 자기 집 앞으로 가도 꾸물꾸물~ 완전 끌어내야 할 판이라니까!
- K 맞아, 맞아! 내 남친은 처음엔 그렇게 깔끔하더니, 이젠 나 만날 땐 떡진 머리 감추던 모자쓰는 것도 귀찮아 해.
- 나 연락도 그래! 아무리 바빠도 문자 하나쯤은 보낼 수 있는 거쟎아?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 눈곱만큼도 생각 안 하지! 배려 따윈 찾아볼 수도 없어.
- K 그러게 말이야! 얘도 연락 뜸해진지 오래야. 이미 잡은 물고기라 이거지. 친구는 어찌나 많은지, 나 만나는 것보다 친구 만나는 걸 더 좋아하는 거 같다니까! '남친'이란 뜻이 '남의친구'라는 뜻이었나 봐.



역시, 스트레스 해소로는 마음 맞는 친구와의 한바탕 수다가 최고였다. 남자친구를 맛 깔나게 씹다 보니, 술도 '술술술' 넘어가서 금세 취기가 올랐다. 결국 우린 점점, 이성의 끈을 놓고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들고 말았다.

- K 이럴 거면 왜 사귀는지도 모르겠어! 진짜 확 그만둬 버릴까?
- 나 진짜? 그래도 만난 시간이 있는데...
- K 그게 뭐? 앞으로 남은 날이 더 많은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설마, 넌 그러고도 계속 만난다는 거야?
- 나 음... 그런가?!
- K 이봐, 이봐~ 그렇게 망설인다는 자체가 이미 끝난 사이라는 거라고!

널 만나도 난 너무 외로워... 이젠 그만하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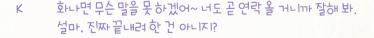
똑같은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우린, 하이파이브를 하며 '솔로로의 복귀'를 자축했다. 역시, 나나 친구에게나 전화도 답장도 오지 않았다.

'그래, 역시 이 남자는 아니었던 거야!'

서운한 감정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같은 입장에 있는 K가 있어 든든했다.

- 나 너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깟 남자보다 친구가 최고다. 정말!

그렇게 한참을 웃고 떠들며 술자리를 이어갔는데... 순간, 창밖으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하필, K의 남자친구였다! 이때부터였다. 정말 눈물겨운 드라마가 파노라마로 펼쳐진 것이. 무릎 꿇은 남자와, 감동으로 눈물짓는 여자... K커플의 극적 화해를 멀뚱히 지켜보던 난, 그제야 술이 확 깼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그러고 보니, 이 호프집은 그들의 단골 데이트 장소였다. K가 굳이 꼭 이호프집을 고집했던 게 기억났다.



이 말을 남기고, 다시금 서로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한 K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유유히 떠나갔다. 그렇다. 내게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오긴했다.

그래, 놓아줄게.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쿨하게.

순식간에 벌어진 이 황당 시추에이션! 뭔가에 홀린 듯한 밤이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 있던 이별이었는데, 막상 날 이끌던 솔로동지가 사라져 버리니... '콰르릉' 외로움이 쏟아져 내렸다.

순간의 기분에 현혹돼, 결국 나만 바보 된 이 무척이나 깔끔한 상황! 솔로가 되는 건 생각보다 참 쉬운 거였다. 근데 왜! 나만 쉬운 걸까... 으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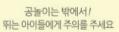












늦은밤 러닝머신, 골프 등 소리 나는 운동은 피해요

TV, 음향기기, 악기의 볼륨을 낮춰요







빨래, 청소, 설거지 등 가사소음을 줄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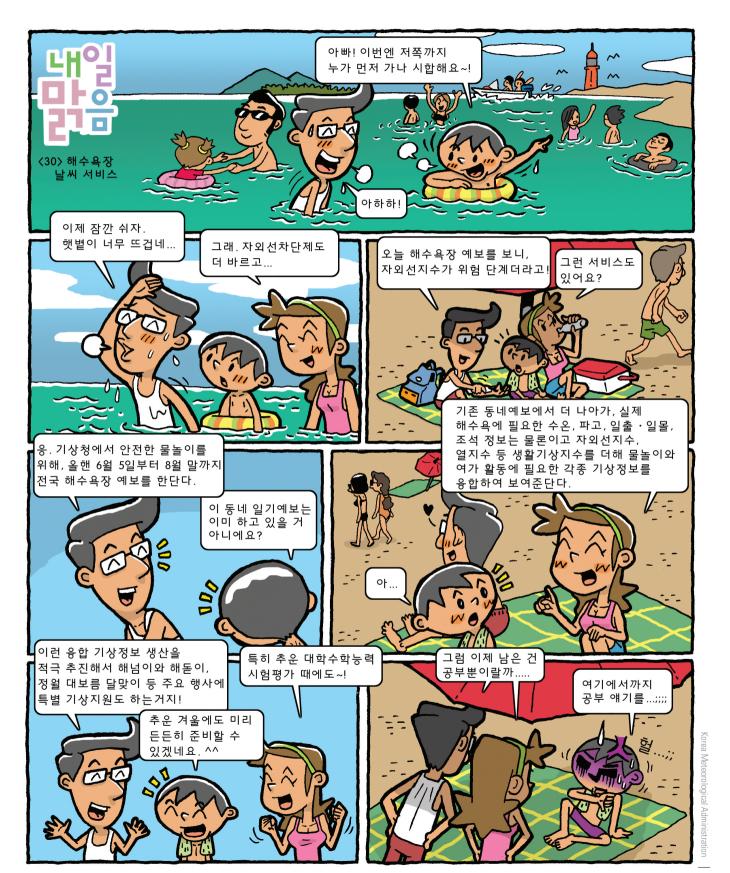
가구 끌기, 망치질은 자제해주세요

애완동물이 짖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요





하늘사랑_ 2013. 8. August



이일수 청장은 유승우 국회의원,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집중호우가 내린 경기 도 이천시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I 편집진



도서지역 기상고객과 함께하다(7.9)

기상업무와 밀접한 흑산도 지역의 기상고객을 초청하여 기 상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상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기상청 직원 방문(7.11)

개도국 기상청 직원 15명이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주관한 '천리한 기상위성자료 활용능력 향상' 국내 초청연수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유럽기상위성센터 기상협력회의(7.15)

기상청과 유럽기상위성센터(EUMESAT)는 협력회의를 통해, 위성자료의 교환과 분석,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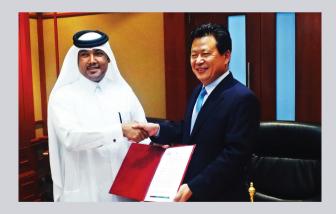
봉사로 다져진 선후배간의 情(7.16)

9급 신규자들이 청내 봉사 동호회인 '단비회' 회원들과 함께, 강서노인종합복지관과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통해 선후배간의 소통을 다졌다.



SNS 우수공무원 수상(7.17)

대변인실의 박영주 주무관이 'SNS 활용 우수공무원' 6인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카타르 업무협약 체결(7.29)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 민간항공부(State of Qatar Civil Aviation Authority)와 기상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카타르 기상청 선진화의 초석이 될 전문인력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5분의 어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시작하나볼까요?



- 1. '바다 위에 끼는 안개'를 무엇이라 하는가?
 - ① 연무
- ② 서리
- ③ 해일
- ④ 해무
- 2. 살이 두꺼워 씹는 맛이 좋고, 씹을수록 고소한 단맛이 우러나는 울릉도 특산물은?
 - ① 호박엿
- ② 오징어
- ③ 주꾸미
- ④ 홍합
- 3. 수증기가 비와 눈이 되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현상인 '물 순환'을 다루는 학문은?

- ① 수문기상학 ② 수학기상학 ③ 수치기상학 ④ 수명기상학

지난 달 퀴즈 정답

1. ④ 웨더맨

2. ③ 진천

3. ① 세로토닌

지난 달 퀴즈 정답자

1. 신정민(서울) 2. 유경숙(경기) 3. 이희권(경북) 4. 박용철(강원) 5. 김동영(전남)



引三 对好

퀴즈 정답은 8월 25일까지 전자메일(kimhy80@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 · 주소 ·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인사발령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별세	7.11	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센터	부이사관(센터장)	이동일
전보	8.1	예보국	예보정책과	기상사무관	김병준
파견	8.1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기상사무관	조남산

3+3/5/3/ 앱출시기념이벤트



이벤트 기간 2013년 8월 9일(금) ~ 8월 31일(토)

참여방법 기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하늘사랑'을 검색하여 앱을 다운 받는다.

2 '소식지'와 '기상사진'을 자유롭게 감상한다.

3 사용후기를 작성해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한다.

당첨인원 총 15명

당첨자 발표 2013년 9월 4일(하늘사랑 앱 당첨자발표 메뉴 확인)

이벤트 상품 기상청 「2013 우산디자인」 공모 입상작 우산



"इल्रामा प्रभ द्रग्रापर"

말이 씨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지켜주세요!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은행 등 시원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낮 12시~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세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사회복지사나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응급처치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면 옷을 입으세요.

이것만은 피해주세요!



가스레인지나 오븐의 사용은 집안의 온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자제하세요.



오랜 시간 동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아이들과 애완동물을 방치하지 마세요. 35 ℃ 폭염경보

33 ℃ 폭염주의보

984_g



폭염 사망

폭염 질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년 폭염 인명 피해 현황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는 마시지 마세요.



창문과 문이 닫힌 상태에서 선풍기를 틀지 마세요.





